

한국사 문제 7월8일

1. 다음 자료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

요즘 서양 제국에서는 모두 회사를 설립하여 상인들을 부르고 있는데, 실로 부강의 기초라 하겠다. (중략) 대체로 회사란 여러 사람의 자본을 합하여 여러명의 농공, 상고의 시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. (중략) 사해에 출병시켜 만국과 통상하여 천하게 부강을 떨치고 이웃나라에 위엄을 보이는 것이 고금 아래로 없는 일이다. 이런 일은 모두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있게 되었다.
[한성순보]

- ① 병인양요로 인하여 외규장각 의궤가 약탈당하였다.
- ② 조일수호조규로 인해 거류지 무역이 발달하였다.
- ③ 조정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내지통상이 가능해졌다.
- ④ 오페르트 도굴사건으로 인해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.
- ⑤ 청일전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게 되었다.

2.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(가)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(완성 160p 실전모의 5회 12번)

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일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이 시기를 맞아 경향의 각 계급의 유지와 명제세, 김종협 두 분과 십수명이 지난 7월8일 정오에 시내 황금정 일정목 조선 물산 장려회 안에서 모였다. 이때 조선의 전 지역을 망라한 조선 민족의 단일 전선을 조직하는 동시에 조선의 민족적 유일 기관으로 (가)를 발기하기로 하고, 우선 발기회를 조직하기 위해 준비위원을 선거하는 동시에 취지와 선거위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

- ① 기회주의 배격을 강령으로 삼아 활동하였다.
- ② 조선혁명당,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이 해소하여 결성하였다.
- ③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었으며 미소공동위의 재개를 요구하였다.
- ④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주장한 사회주의 단체였다.
- ⑤ 활동 목표와 조직과정의 경험이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주었다.